

제36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지방 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 －

- 제36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11월 28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 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논산시와 보령시의 국제교류 사례를 발표하고 시군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 논산시와 보령시는 충남 시·군 중 나름 특색 있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논산시의 경우,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령시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보령시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림1> 제36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좌: 김관기팀장, 우: 최철구팀장)

- 논산시 국제교류팀 김관기 팀장은 ‘논산시 국제교류 현황 및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관기 팀장은 국제교류팀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으며 현재 팀에는 영어권 담당, 중화권 담당, 일본어권 담당이 있어 안정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 논산시는 총 5개국 8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이며, 공공외교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 － 또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생 해외연수는 중소도시인 논산시가 문화적,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논산시는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특히,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해외연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의 중국 상하이 해외연수를 시작으로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 일본 오사카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은 중국 상하이로 다녀왔다고 하였다.

충청중국포럼 소식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교육적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연수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보령시 대외협력팀 최철구 팀장은 국제교류업무를 비교적 오랫동안 맡아온 다소 특이한 케이스이다. 전에도 약 7년간 국제교류업무를 맡은 적 있고, 2015년부터는 본인 의지로 다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보령시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상하이 청포구, 텐진시 빈해신구는 교류 중에 있고 최근에는 우한 마성시와 사전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최팀장은 중국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특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면서, 올 11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수입품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박람회 기간에 상하이 청포구의 지원으로 보령시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새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성시는 내륙 도시인데, 그래서 해안도시인 보령시의 김이나 해삼 등 제품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였다.
 - 최팀장은 국제교류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면서 느낀 점으로 중국과 같이 관시(關係)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서 순환보직체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강연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는 논산시의 중·고등 학생 해외연수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하고 홍보해 우수사례로 알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또 보령시에서 한중친선협회를 조직하여 지역내에서 모임을 결성해 논의해가고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하며 향후 도 차원에서도 관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모임을 조직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경철 박사는 논산시의 사례는 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면서 논산이 유교문화와 더불어 썬샤인랜드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 앞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송두범 단장은 논산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단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해외연수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면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수준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